

## 선교지의 COVID-19를 위한 기도

최윤섭  
열이 내리고 폐렴증세가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투병중입니다.

정소남  
현재 정소남 선교사님은 미국에 거주하시며, 하바롭스크 은혜 교회에 교인 중에 확진자가 2명 그리고 폐렴환자 4명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형민  
성도들중에 코로나에 감염된 가정이 5가정이며 숫자로는 25명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외 현재 증상이 있어서 자가격리하고 있는 가정 이 4가정 입니다.

## 아프신 동역자 분들

김명자  
췌장암으로 강한약 치료에도 암세포가 크더니, 약한약으로 전이를 예방하다가 검사 결과 1.7cm가 줄었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 불가한 일이라고 합니다.

최지섭 이해영  
이해영 선생님의 2번째 재 수술 결과는 잘 나왔습니다. 6개월 항암 치료를 했지만, 항암 치료로 암이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고, 3번의 수술 결과 보이는 곳은 암이 제거됐지만, 유방과 임파선의 암이 크고 숫자가 많아 암이 있을 거라 확신 하기에 경구항암제를 6개월 하고 방사선 치료 후 표적 치료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유방암 3기말이라고 합니다.

## 기도제목

인도네시아 김태환 주애니  
1. 인도네시아를 중보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나라 어려움과 코로나가 빨리 없어 질 수 있도록  
2. 칼리만탄 복음화와 사랑의 박스(생필품) 전달 및 가정 전도를 위하여  
3. 사랑의 공동체 장학관과 현지교단 및 신학교와의 사역을 위하여

케냐 황광식 원지혜  
1.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며, 깨어 있도록  
2. GMI에 속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 신학교 학생들, 학교 아이들과 그 가정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도록  
3. 코로나 후의 사역을 잘 준비하고 그에 필요한 지혜를 주시도록

김재한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요양 중입니다.

이예신  
첫 항암 치료는 네팔에서 한 후 특별기로 6월 1일 한국에 도착하였으며, 자가 격리를 제주도에서 하던 중 폐혈증으로 서귀포 의료원에 입원을 하셨다가 퇴원 후 서귀포에서 요양중입니다

4. 이 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5. 저희 가정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특히 주원, 주이, 주엘이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1국 이00 장00  
1. 1국과 1국 내의 소수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2. 모두가 안전하고 성령이 충만 할 수 있도록  
3. 신학교 준비와 센터 설립을 위해서  
4. 지속적인 인 카운트 사역과 GTD 사역을 위해서  
5. 한글 반 개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 은혜한인교회

2020년 6월 28일 선교사 현황 58개국 344명 자체파송 71%

## 케냐 선교소식

-케냐 황광식 원지혜 선교사(선훈3기)-

샬롬!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안에서 묵묵히 담담하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Stay at home'의 상황이 벌써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케냐는 최근 들어 검사수가 늘어나면서 확진자가 날마다 백명 이상, 많은 날에는 2백명이 훨씬 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케냐에 있는 NGO단체와 한인들, 선교사들이 모금하여 한국산 진단 키트 17,000회분과 마스크 50,000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육이나 일터, 직장, 사역까지 멈추어 버린 상황 가운데 마을마다 생계형 도둑이 나오고, 가정폭력이나 성폭행, 아동학대와 같은 또 다른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 걱정입니다. 케냐 정부에서는 여러 선진국의 사례들을 거울삼아 나름대로 애를 쓰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길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으며, 어떻게 생긴 지도 모르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보다도 하루 먹고 사는 것에 더 급급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통금 시간은 조금 늘어났으며, 도시 봉쇄나 공항 폐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매일 3~4천명이 검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구대비 0.2%에 불과하며 세계 최저치 그룹에 속한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5월부터 주별 숙제를 주고 있는데 매주 월요일에 교사들이 출근하여 일주일치 숙제를 내고, 주중에 복사하여 금요일마다 학부모들이 와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말에서 11월에 치르던 고입, 대입 시험은 9월에 학교가 개학을 한다는 가정 하에 내년 2월로 연기가 되었으며, 아직까지는 어떠한 모임이나 소집도 금지된 상황입니다. 신학교 또한 케냐의 전국 각지에 학생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학기를 오픈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교단 교회들은 Overseer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으며, 각 교회마다 지침을 준수하면서 소수의 인원이 돌아가며 교회에 나와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가정예배 때 아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벌써 몇 개월이 되어가니 아이들이 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왜 빨리 없어지지 않는지 물어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는 기도 제목은 대부분 빨리 응답이 되었는데 이 기도는 수개월째 매일같이 하는데도 아직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으니 아이들도 의문이 드나 봅니다. 우리의 기도를 더 쌓고,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 구해야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손이 닿는대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도와주며 이 시간을 잘 보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이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환경이 열악하기는 하지만 지금 하늘 아래 어느 곳인들 안전하고 편안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믿고 은혜 받은 자들로서 회개의 분량을 채우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 선교소식

## 은혜한인교회 비전을 위한 기도제목

1. 이방인의 총만 수와 이스라엘의 구원 (롬11:25 ~28)을 위한 총체적 선교를 위해
2. 온전한 성결, 전적인 헌신으로 순교적 선교 감당
3. 미전도 종족 지역 7,000개 센터 교회 세움 위해
4. 제자화, 교회개혁, 토착화를 위해
5. 선교사 훈련원 & 신학교(19)를 위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K국, J국(3), 대만, 0국, 1국, 캄보디아, T국, 케냐, 미국, 페루,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쿠바

## 김광신 원로목사의 선교사역 위해

1. 건강 회복과 새 힘 주심
2. 성령충만, 능력충만, 세계선교 마무리 사명 감당

## 한기홍 담임목사의 선교사역 위해

1. 100일 특새 말씀을 위해
2. 성령충만, 능력충만, 세계선교 마무리 사명 감당
3. 영육간의 강건, 이 시대 영적 리더로서 사명 감당
4. 교계와 선교계를 잘 섬기는 사명 감당

## 선교사 방문현황

- 주경자
- 강숙진 (키르기스스탄)
- 정소남, 미선 (러시아)
- 김봉년, 김미란 (첼라빈스크)
- 한성우 (이르쿠츠크)
- 최정진 (알타이)
- 그레이스 김 (파나마)
- 박원근, 박윤숙 (케냐)



1. Amazon.com을 통해 GMI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Amazon.com account가 있으신 분들은 smile.amazon.com 으로 로그인 하신 후, "Grace Korean Church (Fullerton)"를 찾아 설정하시면, 구입하는 금액의 0.5%가 선교후원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smile.amazon.com/ch/95-3861464.

# 인도네시아 사랑의 박스

-인도네시아 김태환, 주애니 선교사 (선훈4기)-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반자르바루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전하며 문안 인사 드립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동역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GKC성도님들과 인도네시아 선교사역을 섬기게 되어 감사합니다.

## 인도네시아 COVID 19 상황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부터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대규모사회적제약(PSBB)-사회, 경제, 교육, 종교적 활동 및 집회 제한 장기화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 새로운 일상(New Normal)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하고자 하지만, 6월 18일(목) 기준, 인도네시아 전역 코로나19 확진자 42,762명, 완치자 16,798명, 사망자 2,339명, 전날대비 추가 확진자가 1,331명이고, 저희가 사역 중인 남부칼리만탄은 확진자 2,326명, 사망자 150명인 상황입니다.

특히 의료시설, 사회적 역량 부족, 국민 건강, 기본 위생이 취약하여 국가, 국민,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두려움과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고,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 공동체가 빛과 소금, 복음의 증인 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지역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 사역 그리고 사랑의 집

저희가 거하고 있는 칼리만탄 뚝에는 함께 협력하는 GBI 시온교회, 복음성경학교 (2019년 시작\_사역자 양성 신학교), 벤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 기숙사 생활을 하며 지내는 100여명의 학생들은 지난 4월 예정된 국가 수능시험이 일주일 전 갑작스럽게 취소되면서 모두 집으로 귀가 이후 아직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랑의 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집 (Rumah Kasih Setia)' 장학관 아이들 7명 모두 시골 고향으로 귀가 조치 후 온라인 교육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고 전혀 기대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에 혼란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저녁 금식 및 예배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바라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깨어서 인간적인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더 넓고 크신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성실하게 생활하며 맡겨주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사랑의 박스

기도 중에 긍휼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코로나로 인한 염려, 두려움과 위축되었던 마음을 넘어서, 그 보다 더 시급한 영적/육적 생명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지난 5월부터 매월 취약계층 30여가정 (80% 무슬림)을 심방하며 사랑의 박스(생필품)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부족함 없는 복음과 사랑의 통로가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의 박스 후원과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한 숨을 허락 받은 피조물로서 겸손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내가 받은 모든 것은 잠시 말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청지기로서 성실하게 사역하고, 생명을 잃으면, 생명을 나누면 생명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성령님에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GKC성도님 모두 주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 1국 소수 민족을 위하여

-1국 이00 장00-

## 살림

목사님과 은혜 그 모든 성도님께 문안드립니다.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체험하지 못했던 거리두기와 모임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1년 나라와 그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를 선하게 사용하시는 1년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뜻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대한민국을 은혜 가운데 두시는 줄 믿습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그의 뜻 안에서 만사형통 하시길 소망합니다.

## 현지 상황

요즘 1국은 기업 유치와 관광업 활성화를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국경을 봉쇄하고 지역간의 이동을 막기위해 차량의 이동을 최소한으로 줄인 결과 6월 14일 현재 334건이 학진되었으며 약 8792명이 격리중입니다. 그중323건이 완치되었고 완치율은 97%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으며 실업자 또한 약 5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을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역시 작년분기에 비하여 약 25% 정도 감소 하였습니다. 1국은 자원이 많고 풍부하지만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1,2차 산업과 외국인 투자 및 관광업으로 국가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광업을 통한 국가의 수입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관광업은 현재 일본 대만 한국 호주등을 상대로 관광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축제들과 행사들이 취소되었습니다. 1국 북부 지방은 올해 이상 기온으로 예전에는 3월초부터 무더운 날씨가 시작 되었지만, 올해는 4월말까지 더위가 오지 않다가 5월초에 북부산악 지역에 폭우와 주먹만 한 우박으로 인하여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가옥의 지붕이 뚫리고 그 지붕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5월 중순부터 다시 더위가 시작되었지만 폭염과 더불어 비가 예년처럼 많지 않아서 가뭄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메콩강 상류인 중국에 댐을 많이 건설하고 물을 내려 보내지 않아 강 주변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많은 베트남인의 근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우박으로 인한 피해>

## 현지 사역



<빈 센터>



<빈 새가족 사영리 모습>

작년(2019년) VGL#1기를 마치고 올해 3번의 E.C를 계획하고 11월 2차 VGL#2 기를 개최 하며 3월에 그 학교를 개강하기 위해 준비중이었지만 미처 생각지 못한 코로나로 인하여 언제 다시 시작해야 할지 가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국 정부에서는 코로나가 발생하자 국경을 봉쇄하고 모임을 자제 시켰습니다. 드디어 얼마전 1국 정부가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빈 센터에서 드디어 약 5개월 만에 다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오랜만에 직접 만나니 서로 기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빈 지역은 하노이 시내에서 차로 약 1시간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삼성을 비롯하여 한국인들의 공장이 많이 있고 근로자들도 많이 근무하는 곳이라 저희들이 제2 센터로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신실한 사람들을 세우고 일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하고 스크린과 예배 집기 및 탁자 의자를 구입중에 있습니다.빠른 시간내에 장소를 넓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교사로 등록하는 절차를 준비중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노이 센터에서 함께 만남의 시간을 시간을 가졌습니다. 1님의말씀을 나누고 함께 노래하며 다시 모여 즐거운 시간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장래 일을 알수 없지만 1년께서 모든 것을 운행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능력의 1년께 우리의 의탁 할 때 선하신 능력을 덧 입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언제까지나 1년이 인도 하시는 길을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1님의 편에 서고, 저희를 사용 하시는데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를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택한 도구로 사용되어 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성도님 여러분께 머리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며 감사를 올립니다. 늘 강건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은혜가 넘쳐 나시기를 기도합니다.